‘고유가폭탄’ 車굴리기 힘겹다

연료비 상승률 8.5%… 물가보다 4배이상 뛰어

중순께 경유세 인상·카드사 주유할인 축소도

브레이크 없는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국제 유가 때문에 올해 상반기 자동차 연료비가 전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8.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실시로 경유 가격 상승이 예정돼 있고 주요 신용카드사들도 이달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지시로 카드 주유할인 혜택을 축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자동차 연료비는 8.5% 급등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1.9%)의 4.5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각각 9.6%와 9.3% 올라 거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유 역시 같은 기간 5.6% 가량 올랐다.

국제 유가가 고공 비행을 계속하는데다 이달 중순에는 유류세 세제개편이라는 기름값 상승 요인이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자동차 연료비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07달러 뛴 68.19달러에 가격이 형성되면서 지난해 8월25일 기록한 배럴당 68.79달러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휘발유 : 경유 : LPG부탄간 상대가격비를 100 : 85 : 8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경유 세율이 인상돼 경유의 소비자가격 부담도 1ℓ당 35원 정도 늘어난다.

반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던 주유할인·적립 혜택은 이달부터 줄어든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할인카드의 경우 휘발유 1ℓ 당 최고 130원까지, 적립카드는 1ℓ 당 최고 120원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에 할인·적립폭 축소를 구두 지시하면서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주유 할인카드의 경우 1ℓ 당 최대 60원, 적립카드의 경우 1ℓ 당 최대 80원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주요 카드사들이 이미 이번주 초부터 카드 주유할인 혜택을 축소했거나 조만간 축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오늘부터 또 부분파업

회사측 불법파업 규정 법적대응 나서

기아차 노사가 4~5일 이틀에 걸쳐 벌였던 본교섭이 별다른 진전 없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6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5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기아차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 오후 3시부터 임금협상 등에 대한 4차 본교섭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1시간 10여분만에 결렬됐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8천805원(기본급 대비 8.9%) 인상, 성과급 삭감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통상임금 200%) 지급, 고용안정을 위한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 종전의 요구안을 그대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은 채 협상을 끝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당초 예정된 대로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 7일 오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주·야간 8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시간 잔업도 거부할 예정이다.

노조는 6일 오전 이같은 노조의 입장을 밝힌 선언문을 발표하는 한편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등 앞으로의 쟁의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에 파업 자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동시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차는 지난 3일 노조의 부분파업과 관련,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3일 파업으로 회사는 모두 4천618대의 생산차질로 676억원에 달하는 매출액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교섭 일정을 잡는 한편 회사측 제시안을 빠른 시일내로 확정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자영업자 油價 경감방안 마련한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고유가 논란과 관련해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가구의 유가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류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가구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또 석유제품 가격의 모니터링 체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방안과 함께 유통체계도 개선하고 경차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도 마련,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활동중이며 금융연구원 뿐 아니라 회계법인들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體典 성공개최 기원 ‘시민 한마음축제’ 열린다

내일 시청 문화광장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88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축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7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범시민지원단과 자원봉사자 등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빛고을 한마음 축제’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와 시 체육회가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시 공무원이 여는 아름다운 나눔장터, 길거리 바닥 그림 그리기, 시민과 함께 꾸미는 예술화장실, 맥주 시음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또 탤런트 이한위를 비롯해 전 체조 국가대표 여홍철, 88올림픽 ‘굴렁쇠 소년’ 윤태웅, 서예가 이돈흥, 가수 박주희, 골프선수 신지애, 지난해 미스코리아미 김수현 등 명예홍보대사 16명에 대한 위촉식, 성공기원 풍선 띄우기, 한마음 음악회 등 시민참여형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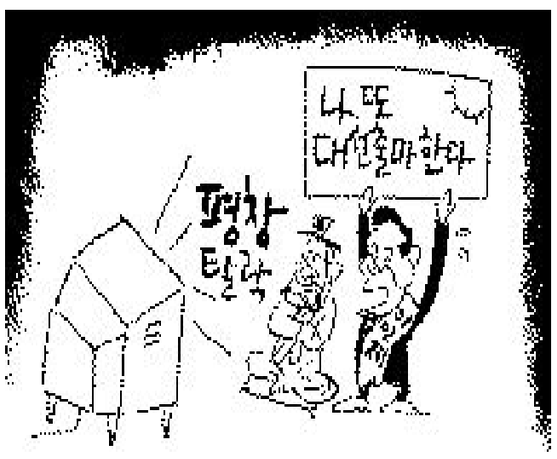
음악회에는 장윤정, 박상민, 크라잉 넛, 별, 양파, 박주희, 김원중, 노라조 등 인기가수와 성악가 임해철, 퓨전 국악단 도드리, B-보이 공연단 등이 총출동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 정기총회 한국지방신문협회 16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곤 전북일보 사장,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이용길 매일신문사장, 김종렬 대전일보 사장, 이순복 경남신문 회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경인일보제공〉

빛日만평

- 김종두



출마 선언 날짜한번 기막히군

‘기부행위’ 해남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강희)는 5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김모(54)씨와 목사 최모(52)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군수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박 군수는 작년 11월 해남의 한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내놓는 등 지난 2월24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경조사비, 해외여행 여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모두 59명에게 5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지난해 1~11월 사이 군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으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신문협 ‘선(善)플’달기 캠페인

인터넷 악플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나서

회원사 정기총회 결의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이희종 강원일보 사장)는 5일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갖고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악(惡)플’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 공동으로 ‘선(善)플 달기 캠페인’을 범국민 운동 차원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동안 잠잠하던 중앙지들의 무차별적인 경품살포를 통한 불법 신문 판촉활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 회원사 공동으로 ‘불법 경품 제보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대표들은 인터넷 악플과 관련, 글 작성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을 이용해 인신공격, 미확인 사실 폭로, 욕설 등이 난무해 피해 당사자의 자살유발 등 사회적·개인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플달기 운동본부’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선플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선플달기 운동본부’는 중앙대 민병철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5월 23일 발족했으며, 영화배우 안성기, 탤런트 유동근, 고승덕 변호사 등 각계의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이순복 경남신문 회장, 김종렬 대전일보 사장, 이용길 매일신문 사장,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 김남곤 전북일보 사장,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직 통 : (062)227-9600, 220-0524, 0525
• FAX : 227-9500
구인 · 구직 · 운전 · 모집 · 초빙 · 영업 · 모임
사설금융 · 매입 · 부동산 · 매매 · 임대 · 전세 · 분양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

분 실
아파트 계약서
광주 서구 금호동 290 쌍용예가
아파트 103동 1501호
계약자 장소영
상기 계약서를 분실공고함.

조립식 건축 전문
• 모든 조립식건물 칸막이공사
• 공장, 창고, 신축, 전원주택, 농가
• 철구조물, H빔, 콘크리트, 각종구조물철거
• 견적및 도면계획 시외 출장
• 저렴한비용, 가족같은 마음으로 작업 지어드립니다.
☎ 062)956-3229, 010-6622-0460
에이스판넬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7-303호
광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1. 광주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화정, 금호, 쌍촌, 백일, 하남, 상무역 일원) 입안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서구·광산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안)

입안명	지구명	입 안 내 용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금호·화정, 하남지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2,916,419㎡ 2.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 용도지구 : 미관지구 폭원 조정 • 기반시설 : 하남지구 문화공원 신설(5,732.5㎡) • 가구계획 : 필지분할금지, 자율적 공동개발(최대개발규모 : 1,500㎡) • 기타사항 : 간축한계선 지정
	상무역 일원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13,148㎡ 2.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가구계획 : 최대개발규모 설정 : 2,000㎡ • 획지계획 : 최소필지 및 공동개발 권역 설정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간선변 600%이하, 이면부 500%이하

2. 공람 및 주민의견청취 기간 : 2007. 7. 6 ~ 7. 21(15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행정동 10층, ☎ 062-613-4425)
• 서구청 도시개발과(☎ 062-360-7454), 광산구청 도시개발팀(☎ 062-940-8451)

♣크로바공인중개사
☎432-4560/018-690-3110
(금호동 CBS옆 일신명지상가)
♣토지 매도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온천지구 내 모텔부지 633평 / 매3억6천500만원(무인텔적합)
* 송하동 준공업지역 200평 2순환도로위(전원주택,민원없음)/매평당75만원
*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관리지역 전675평 2차로접 (공창,창고적합)/매 평당17만원
* 광산구 등임동 (하남-임곡간)도로근접 주거지역 대지300평/매167만원(전원주택적합)
*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미을뒤관리지역 임야 3,700평(3m도로접,경사도완슬) 현 용재밭/매평당7만원
* 광산구 삼거동 관리지역 전480평 도로접 (창고,공장적합)매 평당 27만원
♣상가,건물 매도
* 금호동 CBS옆 대로변 아파트상가 2층30평 / 매8,300만원(학원적합,광고효과좋음)
* 금호2지구 대로변 아파트상가 1층10평 / 매1억2천500만원(보1,500만원70만포함)
* 금호동 부영아파트 부근 4거리코너 대지165평 건평150평3층건물 보증금8,000만원 월220만원/매 4억2천만원(융1억5천만원포함)
* 문흥동 주공1.2.4단지 아파트밀집지역 유마트부근 대지70평 건평124평 매1억5천만 (보2억2천500만원/700만원)
* 월곡동 소방서 뒤 2차로 접 1층 상가주택 대지62평건평36평 / 매 1억4천만원
♣고급레스토랑/가든식당 매도(담당공인중개사 010-2767-0200)
* 두암동 두암타운부근 고급레스토랑 대지134평,건평265평지하1-지상3층 매16억5천만(직영중)
* 담양군 남면 광주댐부근 일주도로접 가든식당 대530평 (일부전포함)건평60평 매도가 5억5천만원
• • 기타 매물 다량보유 • •
*광주시내 아파트및분양권 접수환영
*광주시내 및 인근토지 건물 접수환영
*부동산 매도,매수 수시 상담환영
* *귀하의 소중한 재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분묘소재지	지번	분묘기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57	2
	산59	3
	산66-1	2
	산66-2	6
	산67	2
	산69	3
	산73-1	29
	산73-2	8
	산77	3
	산78	3
	산79-1	2
	산79-3	6
	산79-4	24
	산81-2	3
	산82-1	18
	산82-2	1
	산83	4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산129	13
	산130	4

분묘소재지	지번	분묘기수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산131-1	38
	산136-3	13
	산138	3
	산139	1
	산144	13
	산152	3
전남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산19-9	1
	산23	2
	산24	1
	산26-1	15
	산59-4	2
	산61	6
	산67-1	1
	산67-2	9
	산67-3	49
	산70-1	5
	산72-1	7
	산75	1
	산78-1	9
계		315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에이치케이레져 주식회사 골프장 조성)
3. 공고기간 : 2007년 7월 6일~(최초공고 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유골)안치
5. 개장장소 : 인허가 된 납골당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평화원])
6. 신 고 처 : 에이치케이레져 주식회사, 061-324-7200
7. 신고방법 : 연고자는 연고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기 타 : 분묘개장 공고 후 누락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07년 7월 6일
공고인 에이치케이레져주식회사
대행업체 (유)코뚜레기업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농성동] 361-8111
광주분원 [구시청사거리 중흥동] 529-8111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개강 7月 2日 [첫진도 주,야반]
문제풀이+요약정리 | 이론 집중 특별반
●기본서 핵심요약 심화과정이해 ●1차기본서 특별반
●단원별 출제된 가능성이 높은 객관식문제적응 ●전과목 기본서 특별반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본원 : 361-8111 북구분원 : 529-8111